‘부강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민간 구심체 활동 돌입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500여명 참여
특별법 제정·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 대응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도할 민간 차원의 공식 협의체가 출범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통합 논의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 범시도민 차원의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범시도민 협의회에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경제·산업계, 학계, 교육계, 노동계, 청년·여성·원로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전남 인사 500여명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갈등을 조정하며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공동대표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추진 경과 보고, 특별법 주요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결의문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시·도민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논의 과정 존중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지역 간 갈등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통합 실현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와 전남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를 더욱 확대하고, 설명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 관문인 행정통합 특별법은 2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에 따르면 특별법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로, 시·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토대로 국회 입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발대식은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뜻을 시·도민과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리”라며 “통합 논의 공론화의 본격적인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호남 대부흥의 출발점”이라며 “재정특례와 권한 이양이라는 동력을 바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끝까지 시·도민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오랜 기간 청년 유출과 낮은 지역경제 지표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범시도민 협의회 출범은 경계를 넘어 상생과 도약을 선택했다는 선언”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도지사 “광주·전남 대통합…전례 없는 도약 이끌 것”

한국에너지공대서 북콘서트
자서전 ‘진심정치’ 출간 기념
국가 균형발전 중요성 강조
광주·전남 대통합 길 제시도

18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북콘서트에서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전남 대통합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북콘서트를 열어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전남 대통합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김영록 아카이브: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전남 대통합의 새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김영록의 진심정치’북콘서트에는 광주와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에서까지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말 자서전 성격인 ‘김영록의 진심정치’와 민선 7·8기 주요 정책을 다룬 ‘김영록의 모두를 위한 정책’을 함께 발간했다. ‘지역을 아끼고 사람을 돌보는 리더의 진솔한 이야기’를 부제로 하고 있는 이 책은 김 지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한 정책, 굳은 신념과 추진력으로 난제를 해결한 정책,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선 정책, 전남의 자원을 세심하게 살펴 산업화한 정책, 논리와 정당성을 따져 관철한 정책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행사 전 청중들을 일일이 반기며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박지원·문금주·김문수·정진욱·안도걸·정준호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광주·전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김 지사의 책 출간을 축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언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등은 축하 영상과 축전을 보내왔다.

북토크에서 김 지사는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 공직자로서 살아온 여정, 진실한 정치에 대한 생각 등을 직접 이야기했다.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광주·전남 대통합을 전격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산업화시대에 소외된 호남의 발전을 위해 그토록 노력해왔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도만 하고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로 미래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와 통 큰 지원 약속, 지역 발전을 위한 시도민의 열망 등이 있어 대통합의 길로 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에 걱정과 우려하는 지역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광주·전남의 역량과 지혜, 신뢰와 애정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첨단 미래 산업이 지역에 자리해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의 대통합을 통해 대도약, 대부흥으로 이끌어 전례 없는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지역 국회의원들 “통합 인센티브 환영”

신정훈·안도걸·주철현·정준호 등 한목소리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환영한다”며 “5년간 연 4조원씩 총 20조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재정 지원은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자치정부인 ‘통합 광주·전남’의 소중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지원과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광주·전남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긴요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깔고,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육성하는 데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이를 통한 지방 주도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한 강력한 의지, 진정성 있는 실행력이 읽혀 지는 대목”이라며 “행정통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다”며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공감한다”며 “30년 전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진정한 자치 분권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언급했다.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정부 출범의 실질적 기반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도권을 쥔 중심축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7월 1일 출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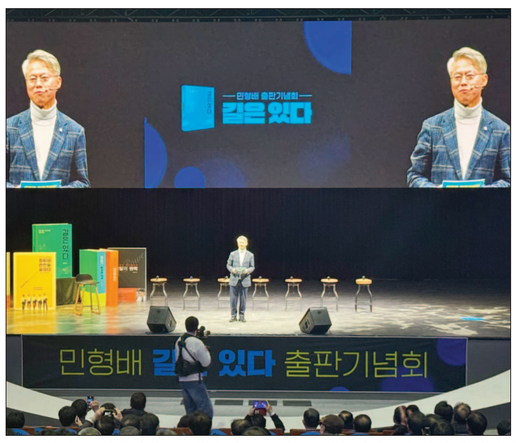
정부가 오는 7월 1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6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남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통합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의 세부 추진 일정과 협조 요청사항을 공유했다. 고 행정부시장과 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과 행안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전남 출마 입지자들, 출판기념회 ‘러시’

민형배 의원, 이정선 시교육감 등 미래 정책 구상·포부 밝혀
김병내·박병규 청장, 우승희 군수·김태균 도의원도 비전 제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이 출판기념회를 무대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 모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이 출판기념회를 무대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8일 광주 오후 3시 조선대학교에서 자신의 저서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민 의원은 지역 산업 구조와 청년 기업가 사례를 중심으로 광주의 미래 구상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화두로 정책 메시지를 정리했다.

민 의원은 “광주 혁신 기업인들의 질문과 상상, 확장의 방식이 놀라웠고 그 과정을 시도민께 꼭 소개하고 싶었다”며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날 행사의 화두는 ‘광주·전남의 통합’이었다.

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답은 현장에 있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지혜로운 열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통합의 새 길은 결코 혼자서 만들 수 없기에 더 끈질기게 질문하고 시민들과 함께 뛰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길을 찾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광주전남특별시교육감 출마가 거론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해오름관)에서 저서인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0’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의 꿈에 사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며, 그 사다리에서 어느 누구도 떨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감의 소명”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각자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실력이 미래가 되는 광주 교육’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같은날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도 지난 7년간의 구정 성과와 행정 철학을 담은 저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김 청장의 저서에는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며 추진한 △백운광장 상습 침수 문제 해결 △양림동·사직동·방림2동·송암산단 등 도시재생 5대 유형 사업 △효도 행정 △생활형SOC 복합화사업 확충 등 주민 체감형 정책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길 위에서’ 출판공유회를 열었다. 박 구청장은 민선 8기 구청장 임기 3년간 시민을 직접 만나며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의 대면과 경청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온 과정을 정리했다. 책에는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 시민 참여 행정의 의미와 함께 AI·사회 대전환 시대를 맞아 광산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민 참여 중심의 미래 거버넌스 구상이 담겼다. 박 구청장은 혐오·차별 표현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내용까지 심의해 정비하는 정책을 주요 행정 사례로 제시했다.

전남권에서도 출판기념회가 이어졌다.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17일 오후 2시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자신의 저서 ‘우승희의 영암이 좋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혁신 영암’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우 군수는 이날 행사에서 영암이 한국 문화(K-Culture)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양시장에 나설 예정인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자신의 저서 ‘길 위에서 마음을 얻다’를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태균 의장은 “이 책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광양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으로, 무엇을 이뤘는가를 말하는 게 아닌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를 되돌아보는 기록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도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안평환·홍기월 광주시의원, 박매호 ㈜자연과미래 대표 등이 북콘서트와 출판기념회를 열고 각자의 정책 구상과 정치 철학을 공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